

“자전거 특훈, 지구 한 바퀴 돌았죠”

‘자전거왕 엄복동’ 정지훈

“가족과 일은 철저히 분리
딸 예쁘지만 공개 안 해”

자전거 페달을 밟고 또 밟았다. 혼자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6~개월 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420m 트랙을 무한 반복으로 돌았다. 몸이 힘든 것은 누구보다 잘하는 그였지만, ‘외로움과 싸움’은 쉽지 않았다. “트랙을 돌며 내가 누구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냐는 생각이 들었죠.”

데뷔 20년 차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37) 이야기다. 그는 오는 27일 개봉하는 영화 ‘자전거왕 엄복동’에서 타이틀롤을 맡았다. 일제강점기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로 ‘전조선자전거대회’에 우승해 동아시아에 이름을 떨친 실존 인물 엄복동을 그린 작품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정지훈은 촬영 당시 힘든 기억을 하나둘씩 꺼냈다.

그는 극 중 모든 자전거경주 장면을 직접 소화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들이 받는 훈련을 3개월 반가량 똑같이 받았다. 촬영 중에도 말만 트랙이지, 흙바닥과 진배없는 곳에서 하루 8시간씩 질주하며 연기했다. 훈련과 촬영 기간 모두 합하면 지구 한 바퀴 정도를 자전거로 돌았다고 한다. 체력 좋기로 소문난 그이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혀를 내둘렀다. 정지훈은 “다잡춰 쳇바퀴 돌듯 타다 보니 마치 재미없어서 빠진 것 같았다”면서 “상대적으로 건장한 저도 힘든데, 보조 출연자들은 탈진하거나 토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자전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타다 보니 허벅지가 엄청 두꺼워졌어요. 원래 32~32 사이즈 바지를 입는데, 그 사이즈를 입으면 허벅지가 맞지 않아서 38~40 사이즈를 입고 허리띠를 졸라맸죠. 지금은 안 먹고, 살 빼는 운동을 해서 허



벅지 근육을 줄였습니다.”

그의 한국영화 출연은 ‘알투비: 리턴투베이스’ (2012) 이후 7년 만이다. 정지훈은 선배 연기자이자, 이 영화 제작자인 이범수가 건넨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박진감 넘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엄복동 선수를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속 엄복동은 궁핍하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엄복동 선수는 손기정 선수만큼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말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요. 제 주변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고 들은 조연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엄복동을 순수하고 올바른 청년으로 생각하고 연기했죠.”

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감독이 교체됐다 다시 합류했고, 자연재해 등으로 촬영이 당초 일정보다 3개월가량 늦춰지기도 했다. 그는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외부의 영향이 있더라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모든 스태프가 한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누구 한명 이탈하는 사람 없이 열심히 찍었다”고 말했다.

정지훈은 2017년 톱스타 김태희와 결혼 후 딸을 낳았다. 딸라진 점이 있을까.

“결혼도 했고,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으니 조금 더 어른스러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 하는 사람들은 아이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이 없으면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죠. 어른스러워져야 하는데, 클럽에 가서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도 들어야 하니까, 아

이러나하기도 합니다.”

내친김에 김태희와 딸의 근황을 물어보자, 그는 “가족과 일은 철저히 분리하려고 한다”면서 “제가 사랑스러운 딸을 자랑했을 때 언젠가 칼과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가수와 배우로서 20년간 활동한 그는 최근 고민도 가감 없이 털어놨다.

“제 직업이 두 개이다 보니 가끔 헛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둘 중 하나는 내려놔야 하는 시기가 오겠죠. 댄스 가수는 유통기한이 없으니까요. 다만, 전 제 몸이 움직일 때까지 제 스타일대로 춤을 출 것이고, 체력관리를 해서 그 유통기한을 조금 늘려보려고 합니다.”

정지훈은 차기작으로 드라마와 영화 출연을 논의 중이며, 올 연말에는 앨범을 내고 콘서트 투어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시청자와 함께하는 운동클럽 ‘SKY 머슬’



JTBC 23일 첫 방송

이번엔 ‘입시 코디’가 아니라 ‘운동 코디’다. 연예인들로 구성된 ‘운동 코디네이터’들은 일반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운동을 마스터하게 도와준다.

JTBC가 새롭게 선보이는 예능 ‘위대한 운동장: SKY 머슬’ (이하 ‘스카이 머슬’)은 제작부터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SKY 캐슬’을 떠올리게 한다.

총 4개 회차로 공개될 방송에선 연예인 운동 코디가 일반인 참가자들과 함께 운동하며 몸매와 건강 관리를 돕는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

극 중 김주영 선생(김서형 분)이 맡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연예인으로는 유세

윤, 박나래, f(x) 엠버, 권혁수, 우주소녀 은서, 모모랜드 주이 6명이 뽑혔다.

매회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출연해 운동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1회에선 수영선수 박태환이 나설 예정이다. 20일 마포구 도화동에서 열린 ‘스카이 머슬’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정승일 PD는 프로그램 제목 탄생 비화에 대해 “‘SKY 캐슬’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 PD는 “입시 코디로 나오는 김서형 씨 역할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운동 코디가 되자는 마음으로 제목으로 만들었다”며 “처음에 ‘스카이 머슬’로 가제를 정한 이후로 그대로 왔다”고 설명했다.

23일 오후 6시 4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유인영, MBC 새 예능 ‘호구의 연애’ MC

배우 유인영(사진)이 예능 MC에 도전한다. 소속사 에이티크리에이티브는 유인영이 다음 달 17일 처음 방송하는 ‘호구의 연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호구의 연애’는 남성 연예인 5명과 여성 지원자들이 함께 여행하며 느끼는 설렘과 유쾌한 에피소드들을 섬세하게 담아낼 프로그램으로 개그맨 허경관, 박성광, 양세찬, 보이그룹 인피니트 동우, 배우 김민규가 구연자로 출연한다.

유인영은 관찰 스튜디오의 메인 MC로



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여성 시각에서 로맨스카운슬링도 할 예정이다.

유인영은 “오랜만의 예능 MC에, 관찰 예능은 처음이라 걱정인데 즐겁게 촬영 중이다. 신선한 재미와 설렘을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소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25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삼사의 모험 55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대 3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45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재) 55 5 MBC 뉴스	00 뒤풀뽀뽀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영상앨범 신(재)	1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열혈사제(재)
7	00 KBS 뉴스 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소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러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력
8	30 비켜라 운명(재)	30 글로벌24 55 왜그래 풍상씨(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박차정>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승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10 해피투게더 1~2부	10 킬빌 1~2부	10 열혈사제 첫주 따라잡기
12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문화사색	30 나이트리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뽀뽀 뽀뽀로
05:30 통일 미리보기 <숨은 북한 찾기>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스페인 소도시 기행 4부 시간을 달려 그곳으로>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가 풀리	21:30 한국기행
08:45 칼라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고택의 겨울 4부 100세 할머니의 따뜻한 집>
09:00 두더지콩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라라 뽀우(재)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굴 버섯죽과 단호박 치즈구이>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두더지콩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출선수범함이 맞다. 48년생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다. 60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자. 72년생 너무 늦었으니 살기 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84년생 급하게 뛰어들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행운의 숫자 : 47, 85</p>	<p>午 42년생 과욕은 망신살을 부른다. 54년생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리라. 66년생 관계와 입장까지 감안하는 것이 좋다. 78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자. 90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 80, 38</p>
<p>丑 37년생 일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라. 49년생 가벼운 징후가 현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61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73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85년생 수순문해서라도 불색해야 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2, 80</p>	<p>未 43년생 탄력이 불다. 55년생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핵심 관건을 놓친다면 빈 그릇만 남은 꼴이 된다. 79년생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 응대해서는 아니 된다. 91년생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49, 94</p>
<p>寅 38년생 정국을 짚어라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50년생 무난하게 추진되는 운로에 놓여있다. 62년생 중북 단편과 과감하게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실속 있다. 86년생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60, 96</p>	<p>申 44년생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56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68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80년생 서두른다면 상대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음을 알라. 92년생 걸으면 풍성한 뽀이진 실속은 빈약하다. 행운의 숫자 : 01, 56</p>
<p>卯 39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성사시기가 쉬워진다. 51년생 몰입 작업이 활발하다. 63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75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다. 87년생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변수가 다채롭게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92, 20</p>	<p>酉 45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로이다. 57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서 결코 살 수 없다. 69년생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81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함시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93년생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면에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68</p>
<p>辰 40년생 거주장소라면 두 말 없이 정산하라. 52년생 무리수를 둔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4년생 뜨거운 상승의 기운이 샘솟으니 기대해도 된다. 76년생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88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2, 46</p>	<p>戌 34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할 필요성 다. 46년생 흡족하지 않겠으니 후일을 기약하라. 58년생 반박 될 뻔했다를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70년생 오랫동안 진행 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 해야겠다. 82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6, 52</p>
<p>巳 41년생 평상시의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겠다. 53년생 다 털어 놓아야 할 입장에 처한다. 65년생 품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77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89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1, 98</p>	<p>亥 35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다가 잡혀왔다. 47년생 앞만 보고 뛰어가서 것이 차라리 낫다. 59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긴다. 71년생 귀인이 도우니 께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83년생 귀하지 힘들지 않고 차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30</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